

월요광장

팬데믹 연대기(連帶記)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재난영화처럼 시작되었던 전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은 일단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조만간 끝나게 될 것 같은 희망을 안겨 주었다. 적어도 오미크론이란 새로운 코로나 변종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의 변종을 이겨 내며 꾀꾀하게 버티오던 우리 모두는 실망감과 좌절감을 갖고 새해를 맞게 되었다. 또다시 직면한 새로운 코로나 위기로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만 보자면 세상은 전보다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듯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만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독일 국민은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신년 불꽃놀이와 파티를 포기하고 새 연립정부 총리의 신년 인사말을 듣기 위해 TV 앞에 앉았다. 메르켈(Merkel) 전 총리에 이은 슐츠(Scholz) 총리는 코로나와 대응수로 인한 재난에 맞서 함께 행동해준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팬데믹과 기후 위기 상황에 더욱 강력하게 연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독일에선 이제 하루 1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엄격한 제한 조치의 시행을 의미하

는 록다운(lockdown) 없이 팬데믹을 이겨 내기 위해 코로나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 개인이 학생이건 선생님이건 또는 자영업 종사자이건 모두가 새로운 코로나 대응 수칙을 따른다. 어떻게든 일상을 지켜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그 어느 곳에도 볼 수 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날이 늘어나는 요즘에도 독일 아이들은 열심히 학교에 간다. 모두들 자신의 루틴에 따라 생활을 하며 올 한 해를 시작했다. 실제로 강화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공공장소 출입을 위해 접종 쿼알코드를 보여 주고, 매일 신속 코로나 테스트를 하는 것에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로의 삶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이 불편함과 위험을 얼마든지 감수하기로 했다.

예술계도 마찬가지다. 전시장과 공연장의 문은 오래 전부터 다시 열렸고 예술가는 관객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에 따르는 수고스러움은 관객의 몫이다. 하지만 공연을 준비한 예술가들을 생각하며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운 서비스 관련 업종은 신속 코로나 테스트 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미리 공연 티켓을 준비한 관객은 공연 당일 동네 곳곳에 위치한 신속 테스트 센터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핸드폰을 통해 받은 방역 패스와 음성 테스트 결과 두 가지를 함께 보여 주면 원하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한 예로 연일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함부르크에서 큰 기대를 불러 모으며 12월부터 시작된 연극 해리포터의 경우 예정대로 차질 없이 상연되고 있다. 총 4부로 구성된 공연은 2시간 40분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공연 시간만 5시간 넘게 구성되었다. 그 중 2부와 3부 사이에 있는 인터미션만 2시간으로, 관람객은 이 시간 공연장 밖 인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3·4부 공연을 이어 볼 수 있다. 이 공연으로 관객은 예술 향유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 또한 생업으로 종사하는 참여 예술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 그리고 인근 자영업 관련 종사자들은 매일 상생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독일인의 신속 코로나 테스트 센터의 운영과 방역 패스의 활용 일상은 여러모로 내게는 다소 충격적이긴 하다. 하지만 록다운을 하지 않고 일일생활권 내의 방역 패스를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연대를 통해 상생을 도모하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한국과 독일 두 나라를 오고 가면서 코로나 위기 속 어느 나라의 정부 대응과 그리고 그 안의 개인의 삶이 더 나은 지 답하기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내용이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 해도 공통으로 추구하는 바는 팬데믹에서도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국민의 연대는 그야말로 세계인들의 칭찬을 받을 만큼 훌륭하다. 나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뢰하고 감사한다. 오미크론이며 앞으로 나타나게 될 또 다른 변종을 당장에는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모두들 힘을 내길 바란다. 개개인의 삶이 멈추지 않도록 어느 곳에서도 무엇이 필요한 지 서로 묻고 돕길 바란다. 한순간의 코로나 감염 확진자의 수만을 비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상생을 위한 행복과 웰빙의 방향 선택이 중요한 시기다.

수필의 향기

무성(無聲) 시대



김향남  
수필가·조선대 외래교수

어둔 폰을 끌어와 화면을 터치한다.

새로 구매했다는 이모티콘으로 반쯤 기분을 내는 기와 공짜만 주로 쓴다는 ㄴ, 감기가 들었는데 약은 먹기 싫다는 ㄸ과 약 먹는 것 하나는 끝내주게 좋아한다는 ㄹ, 퇴근하고 한잔 먹고 싶다는 ㄹ과 어느 바닷가 석양을 찍어 올린 ㅎ 등등 으며 가며 보내 놓은 말들이 계통 없이 이어지고 있다. ㄱ이 뜬금없이 자신의 키스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자청한다. 이런 밤엔 이런 이야기가 제격이라는 듯 마침 내 사람들도 맞장구를 쳐 대나.

ㄱ은 피골이 상접하고 눈만 뻗어서 별 인기가 없었던 다. 운 좋게도 여자 친구가 생겼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예뻐다. 하지만 콤플렉스 덩어리인 자신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손을 잡는 데만도 2년이 걸렸구나? 하여간 입명통지서를 받아 놓고 ㄱ은 마침내 결심이라는 걸 했다. 맑은 겨울날 어느 산속 한 동굴, 안에는 타닥타닥 모닥불이 타고 있고 밖에서는 사락사락 눈이 내린다...

ㄱ의 이야기에 여기서는 ㅋㅋ 웃고, 저기서는 그래 그래서요? 다음을 재촉한다. 동동 북을 울리고 열수! 추임새도 넣는다. 갖가지 추임새(이모티콘)는 말보다 풍성하고 몸짓보다 강렬하다. 속스러워 못하는 말도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야기기는 수줍게 끝났다. 타닥타리는 모닥불과 휘날리는 눈발과 흐르는 시간, 그리고 남자와 여자... ㄱ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쳤지만 함께 북장구를 쳤던 사람들, 그들의 세포 하나쯤은 건드리고도 남았을 것이다.

밤은 깊고 아뭏하게 달뜬 미소를 입가에 매단 채 모두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다. 후끈했던 네모 상자는 일순 식은 화로처럼 썰렁해져 버렸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텔레비전은 저 혼자 떠돌고 소파에 누운 그의 입은 반쯤 벌여져 있다. 저이도 누군가와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게 분명하다. 나를 보자 흡칫 폰을 내려놓는데, 내 머릿속에는 순간 쓸데없는 의식과 호기심의 덩어리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거리며 지나간다.

3. 오늘 아침, 이 방 저 방이 분주하다. 이 방에서는 간밤의 뒷담화가 이어지고 저 방에서는 모닝커피가 날아온다. 모일 공지가 뜨고, 심심한데 뭐하나는 미국 친구의 카톡까지 꺼진 화면에 다시 불이 들어온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 까닭 없이 피곤하고 심드렁하다. 게다가 누구도 딱히 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나는 눈으로만 훑어볼 뿐 침묵을 이어간다. 누가 흑사라도 물어 오면 운전 중이었거나 아직 보지 못했다고 에두르면 된다. 아예 잠수를 타버리거나...

그러나 가만, 내 침묵이 쌓이기도 전에 저 침묵이 더 완강해질지도 모른다. 내 폰은 벌써 아무 기척이 없지 않은가.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고 이윽고 밤이 되어도 끝내 살아날 기미라곤 없을지도 모른다. 굳게 다문 저 네모 상자 밀고도 아득하다. 설명 폰을 떨어 부르르 신호음을 보내 와도 필요한 건 이 아니라 손가락이다. 말이 아니라 글자다. 이제 우리의 만남은 얼굴은커녕 음성조차 갖고 있지 않은 문자의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얼굴을 보며 서로의 표정을 읽어 내야 하는 수고도, 굳이 목청을 가다듬을 필요도 없어졌다. 하지만 얼굴도 소리도 없는 세상은 뭔가 단단히 잃어버린 세계인 것만 같다.

이래저래 내 입에선 소리 한마디 새어 나오지 못한 채 하루가 가고 있다. 이리다간 진짜 산 입에 거미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오, 그런 확실한 문제다.

새로운 '모순' (矛盾) 전쟁의 서막

기고



김영식  
조선대 IT융합대학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시대에 이 지하실은 주로 지역 영주들의 남굴당, 즉 무덤으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영어로 암호는 무덤에서 땀가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 어두운 밤에 무덤에 갈 사람이 있겠는가? 답력 시험이 아니라면 평소에는 사람이 근처에 일선도 하지 않을 곳에서 몰래 비밀리에 땀가를 하던 사람들이 만든 유산이 암호이다.

역사적으로 암호는 인류의 분쟁과 전쟁, 치열한 정치적 다툼이 있는 곳에 항상 있었다. 전쟁 잘하기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인들은 문자의 위치를 바꾸는 암호를 사용했고, 갈리아 원정으로 7년간 싸우려 다닌 카이사르는 말리 떨어진 로마의 정치적 수하들과 의견을 교환할 때 문자를 치환하는 암호를 사용했다. 모든 정보가 0과 1의 이진수로 처리되는 현대 암호에도 스파르타인과 카이사르가 사용한 암호의 기본 원리가 적용된다. 물론 최근에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암호가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키는 비밀로 해야 한다는 관념을 통째로 바꾼 '공개키' 암호가 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마다 공개키 암호로 전자서명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접속할 때 암호화와 인증이 저절로 되는 등 암호는 실생활 곳곳에서 사람들 모르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암호는 컴퓨터 기술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사용하던 암호화 기계인 에니그마가 만든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주인공 앨런 튜링

은 "기계로 암호화한 것은 기계로 풀어야 한다"며 암호 해독을 위한 최초의 컴퓨터를 실제 제작한다.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진 배경에는 암호와 암호 해독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수학자 피터 쇼어 박사는 물리학자들의 가벼운 대화를 듣다가 놀라운 생각을 했는데, 당시 물리학자들이 이론으로 연구하던 양자컴퓨터에서만 동작하는 연산을 활용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RSA 암호를 쉽게 해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것이다.

양자컴퓨터는 당시까지 아무도 실체를 본 적 없는 가상의 컴퓨터였지만, 이때부터 양자컴퓨터를 실제로 만들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암호를 깰 수 있게 되자 각 나라와 기업은 양자컴퓨터를 만드는 연구를 꾸준히 지원했다. 그러다가 구글에서 현존 슈퍼컴퓨터와 성능을 다들 만한 물건을 실제로 만들어 검증까지 마쳤다고 크게 선전할 정도까지 발전했다.

물론 양자 컴퓨터는 아직 현대 암호 해독이 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이내에 현재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는 더는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쇼핑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다행히 양자컴퓨터 공격에 내성을 가진 '양자 내성 암호'가 개발되고 있다. 다시 끝없는 창과 방패(矛盾) 싸움의 새로운 막이 열리려 하고 있다

社說

발주자 처벌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잇그제 광주 시의회 장영주(정의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건설 현장 안전 대책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이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중견 협력업체가 취약화되고, 비용 절감이 목적인 발주자에 의해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안전 감시 기능마저 보조원으로 전락, 건설 산업 현장이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면서 발주자가 시공업체나 원청 회사에 공기 단축과 이윤 극대화 등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관계에서 원청 업체 대표의 처벌을 가능하게 할뿐이지 발주자 책임은 빠

져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발주자·시공자·감리자·설계자·지자체·원청사·하청사·작업자 등 건설 현장 내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한수 건설노조 투목건축분과 위원장도 "특별법에서는 발주처가 건설 공사의 발주·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중심이 아닌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 시공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에 의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됐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건설 현장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빈발하고 있다. 제도적 허점 탓에 의사결정 권한이 큰 발주자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면서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신안 해상풍력' 어민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들어서는 신안 지역 어민들이 "어민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안 지역 뒷자랑 어민들로 구성된 새어민회는 '해상풍력 상생협약'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9월 전남도·신안군·신안군 수협·새어민회 등이 참여해 체결한 상생협약은 민간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어민들의 보상절차 등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신안군은 발전사업자로부터 보상협의 과정 등에 대한 일체의 위임을 전제로 새어민회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민간실무협의체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어민들의 폐업을 전제로 어업 손실 보상 기준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전사업자의 위임장을 어업인 단체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폐업을 전제로 한 '선보상 후착공' 합의는 무시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공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성격은 중앙부

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민간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이라 주장하면서 어민들의 반발이 커졌다. 보상 기준이 민간사업일 경우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공익사업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어민회는 앞으로 전남도와 신안군의 직권남용 및 권력행사 방해 등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는 한편 생존권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신안해상풍력단지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시설이다. 총 48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인근 산단에 풍력발전기 생산·조립 단지 구축 및 지자체 연관 기업을 육성하게 되면 1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이제 어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이들이 애초 합의한 상생협약의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앞으로 풍력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선거철만 되면 점집 문턱이 닳다는 건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안다. 선거를 앞둔 입지자들로서는 출마를 해야 할지, 한다면 어느 선거구를 택해야 할지, 당선은 될 수 있을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결과를 확인하려면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로또를 사야 당첨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처럼,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일단 출마를 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문제는, 단 한 치도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들로서는 앞날을 결정짓을 중대한 결정을 하려면 너무나도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인간의 제한된 인지능력으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변수를 모두 감안해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인간은 지레 포기하는 대신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하고 사용해 왔다. 바로 '통찰'(Insight)이다. 과거의 위대한 지도자들이나 선각자들은 '통찰'을 통해 당면한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거기에 맞는 결정

을 내려 왔다. 살아오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거쳐 획득한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분야에 걸친 밀도 있는 독서, 그리고 깊은 사색 등을 통해 얻은 통찰력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 온 것이다.

따라서 통찰력만 갖추 수 있다면 점집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리 없다. 통찰력 부족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거나, 내린 결정이 과연 최선의 것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하다'는 점점이를 찾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점점들이 모시는 '신'에 의지하며 의사결정권을 포기하고 떠넘겨 버리는 것이다.

개인의 삶도 그렇거니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런 만큼 결정권자에게는 언제나 깊은 고독과 고통의 시간이 뒤따른다. 결정에 따른 결과의 무게가 워낙 무거운 데다 모든 책임은 오로지 결정권자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그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점점이와 신은 결코 책임을 대신 져 주지 않는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